

# 자비·광명의 미소로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은 우리에게 미소로 다가 오신다. 부처님이 지비와 광명의 미소로 중생계를 장엄 하심에 고해의 중생은 사랑과 희망의 미소로 살아 간다. 부처님이 한 번도 미소를 거두어 들인 적이 없기에 간다리에서도, 사막의 동굴에서도, 중국 대륙에서도, 한반도 온 산과 들에서도 부처님의 미소는 시간을 초월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가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CD)를 제작 하여 인도·서역·중국·한국의 대표적인 불상 사진을 골라 지면으로 전한다. 진찬된 미소를 통해 천지가 진동하는 감동을 느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인도 카리시르망오이 지역에서 출토된 소조 불입상. 도톰한 얼굴에서 묻어나는 미소가 따뜻하다.



◇인도 마투라 지역 동견불입상. 2세기말 작품. 누구를 반기는 듯한 모습이 친근함을 더한다.



◇한국 경주의 석굴암. 8세기중엽.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리의 걸작. 근엄한 표정 그 자체가 깨침의 미소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 은황 267굴의 보살반가상. 아래를 내려다 보는 자세로운 미소가 동근 얼굴선과 조화를 이룬다.



◇한국 금동미륵반가사유상. 7세기.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역경의 사유에 잠겨 보는이의 가슴에 신명한 소식을 전하는 듯하다.



◇한국 금동일발식삼산관사유상. 6세기말~9세기초. 턱을 권 손가락이 은은한 미소를 한결 더 돋보이게 한다. 깊은 사유의 세계에서 표어나는 미소의 진찬함이 압권이다.



◇한국 서산의 마애삼존불. 6세기말~7세기 초. 빛의 방향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미소를 연출한다. 백제의 미소로 불린다.



◇중국 맥적산 석굴 제122호 굴 북주사대 작품. 긴 눈매와 살짝 미소짓는 얼굴은 자비 그 자체다.



◇한국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8세기. 방금 세수를 한 듯 자비로운 얼굴이 편안함을 준다.



◇인도 조우리안 사원지의 소조불두. 4~5세기. 굽타미술의 난숙함이 엮은 미소에 녹아있다.



◇중국 운강석굴 제6굴의 삼존불입상 중 본존상. 다소 수줍은 듯하면서도 풍성한 웃음이 일품이다.

**"부처님의 미소를 드립니다"**

인도·서역·중국·한국의 불상사진과 상세한 해설이 담긴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 CD를 드립니다. 점선을 오려서 관제 엽서에 붙여 아래주소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0명. 6월 10일까지.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뉴미디어부  
· http://www.buddhanews.com

##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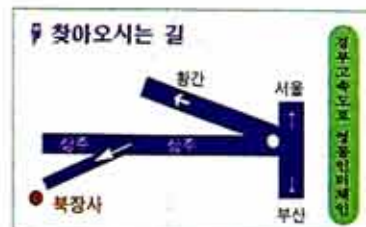
###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좌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隣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교통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